

나이 들어 되찾는 동심(童心)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이 병 한

나는 열세 살이 될 때까지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미·영(美·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일급지 학교였지만 교정을 몽땅 채마밭으로 갈아엎고 어린 학생들까지 식량생산의 역군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학동들은 모내기, 보리 베기, 건초생산, 솔뿌리 캐기, 관솔 자르기 등 고된 노동에 동원되었다. 솔뿌리와 관솔은 거기에서 비행기를 움직이는 연료를 짜낸다고 하였다.

그 당시 일제는 조선어문(朝鮮語文) 말살정책(抹殺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터라 교과서는 모두 일본어로 편찬된 것들뿐이었고, 우리들은 조선말로 된 글을 읽거나 조선말로 된 동시나 동요 따위는 아예 접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 나는 일본어로 된 일본 동화 ‘모모타로’를 읽었고, 일본어로 일본 동요를 익혔고 일본어로 그 노래를 불렀다.

유야께 고야께테 히가 구레테 야마노 오테라노 가네가 나루. 오테테 쓰나이테 미나 가에로우. 가라스도 있쇼니 가에리마쇼.

그리고 구구단도 일본어로 외웠다. “니나가 시”, “니상가 로꾸”, “햇빠 로꾸쥬용” 하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전황(戰況)의 추이에 따라 학동들은 동요 대신 일본 군가를 자주 불렀다. 그 무렵 불렀던 일본 군가는 그 노랫말이나 가락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꽤나 어려웠을 것인데 나는 지금껏 그것들을 고스라니 기억하고 있다. 세뇌효과(洗腦效果)였는지도 모른다.

텐니 가와리테 후기오 우쓰. 츠유무소오노 와가헤이와, 캉코노코에니 오후라레테 이마조 이테타쓰 후보노쿠니, 카타쓰바 이끼테 카에라지도 치카우 코코로노 이사마시사. (육군)

마모루모 세메루모 쿠로가네노 우까베루 시로조토 타노미나루
우까베루 소노시로 히노모토노 미꾸니노 요모오 마모루베시
마가네노 소노후네 히노모토니 아다나스 쿠니오 세메요하시. (해군)

아카이 치시오노 요까렌노 나나쓰 보탕와 사꾸라니 이카리
쿄모 토부토부 카스미가우라냐 테카이 기보오노 쿠모가 와꾸. (공군)

동요를 부르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어야 할 나이의 조선의 학동들이 식민통치하에서 일본 군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이듬해에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음악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동요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사이 우리들의 나이가 훌쩍 동요를 배울 시기를 지나버린 것이다.

중학교 시절 우리는 우리나라 선생님께서부터 우리말로 된 우리 노래를 배웠고 외국의 민요나 가곡도 배웠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북에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부가 들어서 서로 극한적으로 대치하였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그리고 남쪽의 전국 학교에는 군대의 편제를 모방한 ‘학도 호국단’이 조직되고 현역군인이 배속장교로 부임해 왔다. 우리들은 다시 우리말로 된 군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태극기 그려 놓고 천세만세 부르자.
한 글자 쓰는 사연 두 글자 쓰는 사연 대한민국 국군 되기 소원합니다.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동 치는 애국의 깃발
넓고 넓은 사나이 마음 생사도 다 버리고 공명도 없다
보아라 휘날리는 태극깃발을 천지를 진동하는 승리의 함성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 간 전우여 잘 자라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싸우다가 수많은 학도병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그 후유증을 지금껏 앓고 있다.

이렇듯 군가를 부르며 넘긴 세월들이 아쉬웠음일까? 팔순(八旬)을 훌쩍 넘긴 나이에 나는 요즘 부쩍 동시, 동화를 읽고 동요를 부르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인 복지회관에 나가 ‘하모니카’ 불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는 한에 맺힌 사람처럼 수

십 년 세월을 거꾸로 뛰어 넘어 동요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동요를 부르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이 느껴진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꿈이 있다. 거기에는 시기, 반목, 증오, 질투, 탐욕 등 현세적 고뇌가 없다. 또 동요는 노랫말이 쉽고 건강하며 가락도 따라 부르기 쉽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 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곤히 잠을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못다 찬 굴 바꾸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섬집아기〉

섬에 사는 엄마와 아기의 일상이 군더더기 없이 눈앞에 펼쳐진다. 파도소리를 자장가 삼아 팔 베고 잠이 드는 아기의 모습에서, 갈매기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의 안위가 걱정되어 모랫길을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에서 자연과의 교감이 확인되고 엄마의 아기 사랑이 느껴진다.

산토끼 도끼야 어디를 가는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거여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 준대요

〈산바람 강바람〉

산토끼는 산에 살고 있는 토끼다.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토끼가 아니다. 아이들이 산 토끼가 산에서 뛰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여울까? 여름의 산과 들 그리고 하늘의 푸르름을 마음에 지니고 자라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할까? 산이나 강에서 부는 바람을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는 바로 그 산의 주인 되고 그 강의 임자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도시의 고층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상처투성이의 바람이라고 안쓰러워하는 시인이 있었다.

정상적인 시대 상황이었다면 나는 이런 노래들을 70년 전에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예전에 부르지 못했던 동요들을 ‘하모니카’로 불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려졌음일까 동요가 나이를 먹었음일까? 아무렴 나이 든 사람이 동요를 부른다고 탓할 사람도 없을 것이니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밝고 즐거운 동요를 골라 ‘하모니카’로 불어나갈 생각이다.

몇해 전, 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동화구연(童話口演) 지도사 자격’(3급)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어 ‘아이사랑 북시터’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안산시 변두리 아동복지센터에 파견되어 ‘결손가정 아동지킴이’로 7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였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말로 된 동시, 동화도 많이 읽었다.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한시와 관련된 강좌를 담당하였고, 중국의 신화 전설, 지괴(志怪), 전기(傳奇)소설도 꽤 섭렵했던 터에 나이 들어 새로 접하는 우리나라 동시나 동화는 나에게 신선한 감흥으로 다가왔고 이어 색다른 즐거움으로 번졌다. 할아버지가 무릎 위에 손자 손녀 앉혀 놓고 그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오히려 손자 손녀들이 보는 책을 손에 들었으니 처지가 뒤바뀐 셈이다.

별 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 보려,
벼르다 벼르다
이젠 다 자랐소.

정지용 〈별 똥〉

어렸을 적 들은 이야기로는 밤하늘에 꼬리를 달고 흐르는 별이 사라지기 전에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세 번 되뇌이면 그 소원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땅 위에 떨어진

별 똥을 찾아 주워먹으면 무병장수하고 힘이 센 장수가 된다 하였다. 나도 어렸을 적엔 밤하늘을 가로질러 눈부시게 흐르는 별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세 번 제대로 말해 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쌓여 있다. 그리고 별 똥을 아직 먹어 본 일도 없다. 그래서일까 자꾸 자꾸 나이만 먹고 흰머리만 늘어간다.

나야 그렇다치고 지금 한창 자랄 나이의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제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만 매달리지 말고 밤하늘 우러러 흐르는 별을 찾고 그 똥을 찾아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고향 가는 길	통일 되는 길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안경 안에	안경 안에
또	또
안경을 끼신다	안경을 끼신다

박일 <할아버지 안경>

별 똥 떨어진 곳 가 보려고 벼르기만 하다가 그만 다 자라버린 소년의 회한이나 통일되는 길 보이지 않아 안경 안에 또 안경을 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민족의 한을 느낀다. 동시의 형식을 빌어 썼지만 속에 담겨진 뜻은 통일에의 비원이다.

담 위로 해 오르니 꽃 그림자 짧아지고
 담 발치에 까만 개미 뽕뽕 솟아나네
 언 땅 풀려 돌 들석 벌레들 기어나와
 배 구르고 다리 펴며 여기저기 꼬물꼬물
 (牆頭日上花影短, 牆根潑潑玄蟻散. 土解石動蟲子出, 弄腹伸股皆蠢蠢.)

朴齊家 <廁上>

동시가 아니지만 창작 동기나 수사기법에 동시적인 요소가 짙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자연학습 교재로도 쓰일 만하다. 측간에 쭈구리고 앉아 봄날의 햇살 이동과 벌레들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이를 감각적인 필치로 담아 낸 시인의 해학적인 풍모가 엿보인다.

집에 가다
 똥 마려워 바위 뒤에 쭈구려 앉아

공 공 똥 눈다.
뒤에는 강물이 흘러간다.

바람이 분다.
궁둥이가 시원하다.
새들이 날아가다 내려다본다.
다람쥐가 뛰어가다 뒤돌아본다.

내 앞으로 메뚜기가 뛰어간다.
개구리가 뛰어간다.
파리가 날아온다.
나비가 날아간다.

집에 가다
똥 마려워 강 가에서
공공 똥 눈다.

김용택 <똥 눈다>

나는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에게 이 시를 읽어 주면서 이 세상 어느 곳에 이처럼 호화로운 화장실이 또 있겠느냐고 물었다. 도시의 아이들은 대답 없이 그저 킬킬거리기만 한다. 시골 아이들은 또 그게 뭐 그리 대수냐 할 것이다. 나는 시골아이들 편이다.

눈 빛이 종이보다 더 하얗
채찍을 붓 삼아 이름을 써 놓고,
바람 불어 눈 쓸지 않아야
벗이 와 볼 텐데.
(雪色白於紙, 舉鞭書姓字. 莫教風掃地, 好待主人至.)

李奎報 <雪中訪友人不遇>

선비가 눈이 오는 날 친구를 찾아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왔다간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채찍을 들어 눈 위에 자기 이름 석자를 적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 이름을 지우지 않기를 바랐다. 발상은 동시적(童詩的)이지만 행태는 서생기(書生氣)를 벗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 눈이 오면 아이들은 눈 위에서 뛰놀며 발자국을 남겼다가도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동시를 읊조리고 동화를 읽으며 ‘하모니카’로 동요를 부르는 사이 내

마음도 분명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젊어지는 샘물>을 마신 노인처럼 젊어져 있을 것이다. 사람이 젊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젊어지는 비결을 돈 들고 품 팔아 멀리 딴 곳에서 구할 것도 아니다.

맹자(孟子)는 “큰 사람은 어린이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離婁 下>-)라 하였고; 이지(李贄)는 “어린이는 사람의 처음 모습이며, 동심이란 마음의 시초다.”(童子者人之初也; 童心者心之初也.-<童心說>-)라 하였다. 우리 모두 동심을 지켜 큰 사람 되자.